민주당 ‘사면초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정개특위 맡아 선거개혁 완수” 압박
사법개혁 등 물거품 우려…4당 공조 균열 조짐에 해법 고심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민주당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 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며 “그 의지의 출발점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특위 활동 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 온 야 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 3당 대표들은 또 한국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좌초시키려는 생떼 부리기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책임 있게 응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한국당과 합의 전 정개특위 위원장 문제를 정의당에 사전에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전교감이 있었으면 저희가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겠느냐. 거짓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개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가 한국당 몫으로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공조 파기 압박에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의석수 128석의 집권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정치지형 속 야 3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의 과제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관계 개선’이 급선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정의당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정의당이 ‘사전협의를 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더욱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자칫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야 3당과의 공조를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5일 경제원탁 토론회·18~19일 본회의

여야 의사일정 확정…추경 처리는 불투명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만은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어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해 온 ‘경제원탁 토론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고, 18~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로 종료된다.

한국당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앞서 오는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한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국정조사를 두고 한국당과 발을 맞췄다.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가운데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도 정국의 변수다.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선택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반발은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김정은, 9월 UN서 연설할 것”

라디오 출연… 향후 예측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일정과 관련, “최소한 9월경에는 유엔총회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가서 연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 3차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빅딜이 이뤄졌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통해서 로드맵 시간표를 작성해서 앞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대로 ‘영변 폐기 플러스알파’, 즉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폐기해준다고 하면 미국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고 덧붙여 원유 수입제한도 풀어주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잘 나가리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여기까지 나가면 저는 최소한 9월경에는 유엔총회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서 연설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 나중에는 중국까지 합쳐서 4개국 정상이 평화협정까지 이루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대선주자 지지도 1위

리얼미터 조사 21.2%·황교안 20%…6개월만에 역전

차기 대선주자 중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앞서며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이낙연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21.2%였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이 총리에 대한 선호도는 전달 대비 0.4%포인트 오르는 등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 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중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황교안 대표가 20.0%로 뒤를 이었다. 지난 5개월 연속 이 총리에 앞섰던 황 대표는 전달보다 2.4%포인트 내리며 지난해 11월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이고 이 총리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 총리와 황 대표의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2.0%포인트) 내였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0.8%포인트 내린 9.3%, 김경수 경남지사가 1.4%포인트 오른 6.2%,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1.3%포인트 오른 5.8%, 박원순 서울시장이 0.6%포인트 오른 5.3% 등의 순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0.6%포인트 오른 4.9%,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0.9%포인트 내린 4.4%,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0.4%포인트 내린 4.3%로 집계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3.2%), 오세훈 전 서울시장(3.1%),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2.5%)도 차기 대선주자군에 이름을 올렸다. ‘없음’은 1.1%포인트 오른 7.7%, ‘모름·무응답’은 0.6%포인트 내린 2.1%로 조사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여야 싱크탱크 “국회 신뢰 높이자”

공동연구 진행키로

국회와 여야 5당 정책연구원은 2일 국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싱크탱크와 정책 협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및 여야 5당의 정책연구원 원장들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및 여야 5당 정책연구원 간 협력 방안에 의견을 함께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 주선으로 마련된 오찬 간담회에는 문 의장과 박진 미래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자유한국당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바른미래당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 민주평화당 천정배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정의당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이 자리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회 미래연구원과 여야 5당의 정책연구원이 올해 연말까지 국회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당 싱크탱크 간 공동 연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

다스코㈜ 세라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하신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社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3.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EPC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구조물 영업 유경험자
• 태양광 개발사업 유경험자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 사업타당성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순
	신재생에너지	영업	· 태양광영업 경력자	
		R&D	· 전기공학 관련 전공자 (경력직)	
세라코	수질정화	설계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나주
	세라믹(점토벽돌)	영업	· 설계영업 경력자	
		R&D	· 요업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 접수문의 : 담당자 061)370-2137, recruit@dasco.kr, 접수기한 : ~채용시까지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